

#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Aged and the Non-Aged Household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金娟廷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 Sook-Jae Moon

Consumer Science &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

*Prof.* : Soon-Mi Kim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Yeon-Jeong Kim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Aged Households and Non-aged households. The sample obtained from 1993 KHPS, consisted of 3,425 Korean married couples including 2,915 of non-aged households and 510 aged households.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and t-test. And Lorenz curve and Gini coefficient were used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us of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status of aged households, specially annual total income, annual current income, earned income, and annual total expenditure, were lower than those of non-aged households.

Second, Gini-coefficients of aged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were greater than expenditure of them. Moreover, Gini-coefficients of aged households' total asset and total debt were greater than those of non-aged households'. However, total asset of aged and non-aged households were smaller than total debt of two groups.

### I. 문제의 제기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평균 수명과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70년의 63.2세였던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1980년과 1990년에 각각 65.8세, 71.3세였으며, 2020년에는 7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보건사회통계연보,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에서 재인용). 또한 전체인구중 5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 9.1%이었던 것에 반해 1990년과 1994년은 각각 11.4%, 13.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4).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이기가 장기화되고 핵가족의 증대로 인한 노인단독가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계는 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감소됨으로서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수입감소 및 경제적 의존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민재성 등, 1993).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 노인문제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이가옥 외, 1993).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에서 조사한 노인단독가계의 재정상태를 살펴 보면, 20만원미만의 월평균소득을 갖는 노인가계가 전체 노인가계의 85% 이상이었으며, 50만원이상의 노인가계는 전체 노인가계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민재성, 1989에서 재인용). 또한 노인가계의 수입원을 보면, 가계수입을 자녀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계가 63.7%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민재성 등, 1993). 뿐만 아니라 5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소비지출은 비노인가계에 비해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35-39세에 73.4%, 40-44세에 75.8%, 45-49세에

76.0%, 50-54세에 71.9%, 55세이상에서는 70.6%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불룩한 포물선은 노인가계의 소비성향의 위축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도시가계연보, 1990). 그밖에도 생애주기의 형성기나 확대기는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으로 자신의 노인기에 대비할 충분한 자산이나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축소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가옥 등, 1990; 민재성, 199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 볼 때, 생애주기에 따라 재정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현재의 재무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측정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인 개인의 생활의 질적 측면이나 사회의 경제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가옥 등(1990)의 노인가계의 최저생계비 추정을 통한 빈곤상태추정에 관한 연구나 민재성 등(1993)의 노령자가계의 소득 소비 변화추이 등과 같이 재정상태의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며, 노인가를 대비한 장기생활설계의 필요성(김영숙, 1983), 은퇴전후의 재정상태(이희숙, 1995),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성숙, 박운아, 1992), 은퇴전 재무계획의 필요성(김순미, 양정선, 1994) 등과 같이 노인가와 비노인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과 지출, 자산 등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자원 보유에 대한 내부적인 불평등도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 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의 수준 및 불평등

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년기를 전후한 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가계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를 체계화 하는 재무관리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선행연구고찰

개별가계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특정지표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목적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Quinn, 1987 ; Radner, 1992에서 재인용).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Smeeding, 1988 ; Hurd, 1990 ; Grad, 1990 ; Radner, 1987, 1990에서 재인용)으로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지출은 임시적 요인이 있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Friedman, 1956 ; Modigliani & Brumberg, 1962 ; Garner, 1993에서 재인용)이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 순자산은 소득과 지출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정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된다(Radner, 1989, 1990, 1992 ; Schwenk, 1993 ; Shea & Crystal, 1990).

Schulz(1992)는 일반적으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대신 연금이나 자산소득 또는 이전·기타소득을 보유함으로써 경제적 지위를 유지·개선시킨다고 하였으며, Radner(1987)는 노인가계의 소득증양치가 비노인가계의 65%정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Danziger 등(1982, 1983), Menchik 등(1983), 그리고 Torrey 등(1986)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구조의 차이에 대해 노인들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Radner(1987)는 노인가계부의 저축이 이루어진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Schulz, 1992에서 재인용).

한편 소비성향은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고 노인가계 이전의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며(Danziger 등, 1982-1983), 자녀나 친지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있기 때문(Laffer, 1976 ; Danziger 등, 1982-1983에서 재인용)에 비노인가계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며, 이러한 소비성향은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그 변화가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민재성 등(1983)의 연구에서는 소득감소에 따라 지출수준이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지출의 비교에 있어서 소득과 가족구성이 가족의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노인가계의 경우 감소된 가족소득이 소비유형의 변화를 초래하여 비노인가계와는 다른 생활을 영위한다(Wagner & Hanna, 1983 ; Ferber, 1979 ; Yi, 1989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그밖에도 Kennickell 등(1994)은 45-54세와 55-64세에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애주기시설을 증명하였으며(DeVaney, 1995에서 재인용), Radner(1990) 역시 자산과 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비노인가계에 비해 노인가계 후반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면서, 자산과 부가 노인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자산의 구성 비율에 대해 Torrey 등(1986)은 횡단자료와 종단자료 모두에서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하여 대부분의 자산을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DeVaney, 1995에서 재인용).

이처럼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노인가계와 비교한 기존연구는 소득 및 지출, 자산이나 부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Danziger, van Der Gaag, Smolensky, & Taussig, 1982-1983 ; Menchik & David, 1983 ; Torrey & Taeuber, 1986 ; Smeeding, 1989 ; Radner, 1987,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자산의 분포를 통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분석과 함께 각 집단내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적 지위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각 지표간의 관

계 및 비율을 통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Lorenz 곡선과 Gini계수를 사용한다. Lorenz 곡선은 분위별 누적 가계백분율과 누적 소득백분율 간의 함수로 가시적인 불평등도를 파악할 수 있고, Gini계수<sup>1)</sup>는 Lorenz 곡선에서 유도되어, 총삼각면적분에 불평등곡선면적의 비(ratio)를 의미하여 가계의 자원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지표이다(박홍립, 1991). Bishop 등(1991)은 Lorenz 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Lerman 등(1984)은 Gini계수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Wang, 1995에서 재인용). Garner(1993)는 소득보다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수준을 측정하여서 빈곤율을 더 낮게 추정하였다. 또한 Wang(1995)은 Lorenz 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분석에서 지출이 보다 평등하게 분포되어 지출을 통한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추정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Radner(1987) 역시 5분위를 통한 Lorenz 곡선과 Gini계수로 노인가계의 소득이 비노인가계의 소득보다 더 많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DeVaney(1995)는 비노인집단과 비교했을때 노인집단의 소득불평등이 더 큰 원인을 노인기에 발생하는 은퇴와 배우자의 사망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Crystal 등(1990)은 누적된 이익/불이익 모델(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model)을 적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비노인이었을때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며, 따라서 좋은 직장과 건강상태, 더 높은 소득과 은퇴후의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은 일생동안 누적되어 노인기에 가서 저축과 재정상태를 편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Lorenz 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한 소득

및 지출분포는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의 한 방법으로서 지난 수십년동안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를 통해 빈곤선을 책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Garner, 1987 ; Slesnick, 1993 ; Wang, 1995에서 재인용).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상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보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도는 어느 수준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가계총소득,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가계경상소득, 가계총지출, 가계총자산, 유동자산과 실물자산 및 가계총부채 등의 재정관련 변수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표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의 파악과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다. 1993년도에 실시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단계 추출확률법에 의해 추출된 전체표본은 3,425 부부가계로서, 이중 55세미만의 비노인가계는 2,915가구, 55세이상의 노인가계는 510가구였다. 가구주연령을 55세기준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로 구분한 것은 고령자

1) Gini계수의 1은 모든 소득을 한 가구가 분배받는 완전 불평등분배이고, 0은 완전평등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0.5이상이면 높은 불평등분배, 0.4이하이면 낮은 불평등분배, 0.4-0.5이면 중간 불평등분배로 해석한다(박홍립 1991).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u>개인 및 가계관련변수</u>		
연령준거(남편연령)	1=55세이상 노인가계	0=55세미만 비노인가계
거주지역	1=광역시	0=기타지역
남편의 교육수준	교육년수	
가족원수	전체 가족수	
가족유형	1=확대가족	0=핵가족
주택소유유형	1=자가	0=전·월세·기타
주택유형	1=단독주택	0=기타(아파트·연립·다세대 등)
<u>남편직업</u>		
봉급생활자	1=해당	0=비해당
자영업자	1=해당	0=비해당
농림수산업자	1=해당	0=비해당
비정규직·미취업자	1=해당	0=비해당
무직	1=해당	0=비해당
<u>재정관련변수</u>		
가계총소득	급여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비정규근로소득 +부업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근로소득	급여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비정규근로소득 +부업소득(만원/년)	
비근로소득	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자산소득	금융자산소득+부동산소득(만원/년)	
이전소득	국민연금+사학/공무원/군인연금+국가보조금+친지보조금(만원/년)	
기타소득	적금·탄돈·지급받은 보험금+유가증권 매각대금+ 동산/부동산 매각대금+빌려주었다 받은 돈(만원/년)	
가계경상소득	가계총소득-기타소득(만원/년)	
가계총지출	식료품비·외식비+주거비+피복 및 신발비+교양·오락비 +교육비+휴가비+연료비+의료비(만원/년)	
가계총자산	유동자산(예금+주식+채권+보험+계)+실물자산(현재주택 가격)(만원)	
가계총부채	금융기관부채+사채+월부 및 외상부채(만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Consumer Population Survey에서 이루어진 노인 및 은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도 55세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을 위해 가계총소득, 가계경상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및 총자산, 유동자산 및 실물자산, 총부채 등에 대한 단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두 집단간 재

〈표 2〉 조사가계의 일반적 특성

연속변수	집단	노인가계 (N=510)		비노인가계(N=2,915)		전체가계(N=3,42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연령		60.72	5.10	38.48	7.50	41.79	10.70
남편교육수준		7.96	4.28	11.72	2.67	11.16	3.25
가족원수		3.89	1.60	4.06	1.00	4.03	1.11
범주형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광역시	214	42.0	1,639	56.2	1,853	54.1
	기타	296	58.0	1,276	43.8	1,572	45.9
가족유형	핵가족	460	90.2	2,609	89.5	3,069	89.6
	확대가족	50	9.8	306	10.5	356	10.4
주택소유 형태	자가	431	84.5	1,401	48.1	1,832	53.5
	임대	79	15.5	1,514	51.9	1,593	46.5
주택유형	단독주택	401	78.6	1,526	52.3	1,927	56.3
	기타주택	109	21.4	1,389	47.7	1,498	43.7
남편직업	봉급생활	118	23.1	1,581	54.2	1,699	49.6
	자영업	103	20.2	921	31.6	1,024	29.9
	농림수산업	184	36.1	172	5.9	356	10.4
	비정규직·미취업	76	14.9	223	7.7	299	8.7
	무직	29	5.7	18	0.6	47	1.4

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재정상태의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경상소득과 총지출, 총자산과 총부채의 10분위 분포와 Gini계수를 제시하였다.

### 3.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노인가계의 평균연령은 61세, 비노인가계는 38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비노인가계가 노인가계보다 높았다. 거주지역을 살펴 볼 때, 비노인가계는 광역시, 노인가계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두집단의 가족형태는 대부분이 핵가족을 나타냈다. 주택소유 형태와 유형을 살펴 보면, 노인가계는 자가소유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비노인가계는 자가 및 임대

비율과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의 비율의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남편직업에 있어서는 비노인가계의 경우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은 반면, 노인가계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분석결과

###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총소득, 가계경상소득과 각 소득원천, 가계총지출, 가계총자산 및 가계총부채의 중앙값과 평균을 제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를 실시하였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및 총자산, 총부채의 재정상태

변 수	노인가계(N=510)			비노인가계(N=2915)			t-value
	N	중앙값	평 균	N	중앙값	평 균	
가계총소득	510	1,175	1,589.65	2,915	1,700	1,987.66	6.07***
근로소득	510	1,025	1,370.31	2,905	1,484	1,691.58	6.49***
농림수산업	231	960	1,521.36	1,807	1,400	1,510.02	-0.23
자영업	140	960	1,308.17	1,016	1,200	1,693.78	3.50**
부업	23	180	228.09	69	300	446.88	2.15*
비근로소득	184	301	442.05	172	500	769.80	4.42***
비정규직	173	360	448.62	706	250	426.79	-0.56
자산소득	77	210	608.08	453	150	432.42	-1.67
이전소득	71	150	244.48	244	111	275.44	0.75
기타소득	63	500	701.04	807	500	785.92	0.19
가계경상소득	510	1,140	1,495.99	2,915	1,550	1,770.08	5.03***
가계총지출	510	612	733.95	2,915	826	922.19	7.70***
가계총자산	461	3,020	5,417.50	2,803	3,080	5,168.64	-0.75
유동자산	295	500	809.35	2,434	500	805.42	-0.07
실물자산	409	3,500	5,522.52	2,382	3,000	5,259.16	-0.74
가계총부채	225	400	886.34	1,567	500	982.81	0.80

N : 무응답과 중복응답으로 표본수에 차이가 있음.

\* P <.01, \*\* P <.05, \*\*\* P <.00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의 차이를 살펴 보면, 가계총소득, 근로소득, 가계경상소득, 가계총지출의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우선 두집단의 평균 가계총소득을 살펴보면, 노인가계는 1,590만원으로 1,988만원을 보인 비노인가계보다 적으며 중앙값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간의 소득액의 차이가 더 큰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총소득은 비노인가계 총소득의 약 69%정도를 차지하여 미국 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총소득이 비노인가계의 65%를 제시한 Radner(1987)의 연구결과에 근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 역시 비노인가계가 유의하게 많은 소득액을 보여 노인가계의 은퇴로 인한 소득원별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근로소득의 차이를 제시한 Grad(1990)와 Schulz(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업별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자영업, 농림수산업과 부업소득이 비노인가계의 경우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등에 따른 여성들의 시간제 부업증가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비근로소득액은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가계총소득액과 총지출액을 통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가계수지의 상대적 수준으로 측면으로 비교해보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는 각각 2.17과 2.16<sup>2)</sup>의 흑자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경상수지는 두 집단의 평균 가계총소득액을 평균 가계총지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그 결과 노인가계는 2.17, 비노인가계는 2.16으로 두 가계 모두 흑자경제상태를 보였다.

노인가계의 경우 평균 가계총소득과 평균 가계총지출액에 의한 가계수지는 2.17로서, 도시가계연보(1994)의 55세이상 가계의 1.57보다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는 비노인가계가 노인가계보다 소득과 지출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도시가계연보(1994)의 결과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과 총지출액이 증가하다가 55세이상의 노인가계에서 다시 감소한다는 결과 및 연령증가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포물선형을 보인다는 Radner(1987, 199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인가계의 자산 및 부채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노인가계중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중의 하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461가계였으며, 총자산의 평균액은 5,418만원이었다. 또한 유동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809만원인 반면, 실물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5,523만원으로 노인가계의 경우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의 비율은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유동성이 약한 실물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Torrey 등(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가계의

평균부채액은 886만원으로 국민가계경제연구소(1993)에서 조사한 노인가계의 부채보유액인 1,584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가계총자산액 및 가계총부채액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가 경상소득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노인가계 보다 더 많이 보유한 자산을 소비함으로써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한 Schwenk(1990), Schulz(1992)와 Radn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도 분석

### 1)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 및 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이 때, 가계총소득 대신 경상소득을 사용한 것은, 기타소득이 자산재평가를 의미하므로 항상적 의미를 갖는 경상소득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박홍립, 1991).

<표 4>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전체가계의 10분위별 소득과 지출 분포와 Gini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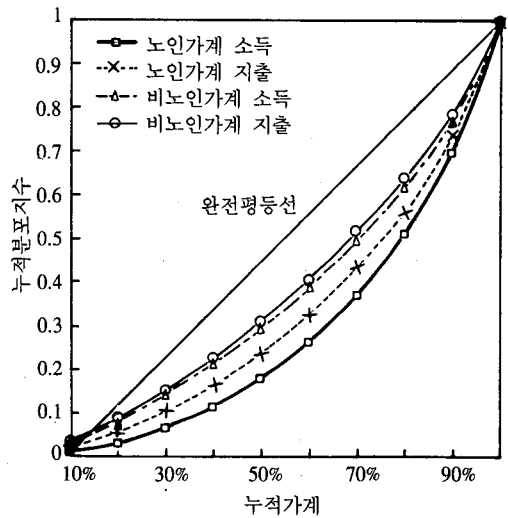
10분위	노인가계(N=510)		비노인가계(N=2,915)		전체가계(N=3,425)	
	경상소득	총지출	경상소득	총지출	경상소득	총지출
하위 10%	.00934	.01944	.02837	.03591	.02134	.03074
하위 20%	.03027	.05397	.08038	.08880	.06804	.08039
하위 30%	.06637	.10131	.14539	.15332	.12995	.14293
하위 40%	.11657	.16029	.21674	.22733	.20074	.21601
하위 50%	.18228	.23447	.29827	.31176	.28144	.30005
하위 60%	.26512	.32333	.39132	.40709	.37430	.39558
하위 70%	.37106	.43229	.49586	.51529	.48401	.50433
하위 80%	.51172	.56059	.61799	.63942	.60511	.63003
하위 90%	.69705	.72954	.76441	.78522	.75610	.77895
Gini 계수	.45240	.37622	.29808	.27187	.32275	.28932



노인가계의 경상소득 분포를 10분위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최상위 10%는 30.3%, 최하위 10%는 0.9%의 경상소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 10%의 가계가 최하위 10%의 가계에 비해 33.7배 정도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5분위로 살펴 보면, 최상위 20%가 48.4%, 최하위 20%가 3.0%의 경상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비노인가계는 최상위 10%에 23.6%, 최하위 10%에 2.8%의 경상소득을 보유하고, 5분위로 볼 때 최상위 20%는 38.2%, 최하위 20%는 8.0%를 보유하여, 노인가계의 경상소득이 비노인가계에 비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지출액의 분포를 살펴 볼 때, 노인가계의 경우 최하위 10%에 1.9%, 최상위 10%에 27.1%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를 5분위에서 보면 최상위 20%에 43.9%, 최하위 20%에 5.4%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노인가계는 최상위 10%는 21.4%, 최하위 10%는 3.6%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를 5분위로 볼 때, 최상위 20%는 36.1%, 최하위 20%는 8.9%의 지출을 보여 최상위 20%가 최하위 20%보다 4.1배 정도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출분포의 비교를 통해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불평등한 지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재정상태의 경우 노인가계가 보다 안정적이지만 노인가계의 소득 및 지출분포의 불평등이 더 크다는 Radner(1987, 1990)의 연구결과, 또 노인가계 소득의 불평등 원인을 노인이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누적된 결과로 제시한 Crystal 등(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Gini계수를 살펴 보면, 노인가계의 총지출에 기초한 Gini계수는 0.38로 경상소득의 Gini계수인 0.45보다 더 적었으며, 비노인가계의 총지출에 기초한 Gini계수는 0.27로 경상소득에 기초한 Gini계수인 0.30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경상소득이 총지출보다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소비에 기초하여 불평등도를 제시한 빈곤측정이 연간소득에 기초한 측정보다 추정된 빈곤율이 보다 낮다는 Slesnick(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비노인



〈그림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Lorenz 곡선

층보다 노인층 사이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더 크다는 Smeeding(1989), Radner(1987, 1990)의 연구결과와 노인가계의 재정복지 추정에서는 소득보다 지출의 추정이 타당하다는 Garner(1987), Wang(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1]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경상소득과 지출의 Lorenz 곡선을 제시한 것이다. 두 집단 모두 연간 경상소득의 Lorenz 곡선이 총지출의 Lorenz 곡선보다 완전평등선에서 보다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의 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지출이 임시소득보다 경상소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과 노인가계의 경우 현재의 경상소득이 적더라도 자신의 축적된 자산을 소비하거나 자녀나 친지등 타인의 도움으로 소득보다 더 많은 초과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Laffer(1976)의 연구결과처럼 소득보다는 지출이 재정적 복지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불평

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노인가계는 최하위 10%가 0.3%, 최상위 10%가 39.9%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상위 20%는 59.7%, 최하위 20%는 1.1%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노인가계의 경우 최하위 10%는 총자산액의 0.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상위 10%는 32.4%의 총자산을 보유하여 최상위 10%가 최하위에 비해 98배정도 더 많은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5분위를 비교해 볼 때, 최상위 20%는 57.3%, 최하위 20%는 2.0%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8로 나타났다. 총부채의 경우, 비노인가계는 0.62, 노인가계는 0.63으로 노인가계가 다소 불평등하게 분포되었으나 총자산의 불평등에 비해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에 있어서 노인가계가 보다 높은 불평등상태를 보인 것은 총자산이 생애에 걸친 저량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노인가계의 경제적 산출의 계층화 정도가 노인기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Crystal 등(1990), Malroux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

<표 5>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전체가계의 10분위별 총자산과 총부채와 Gini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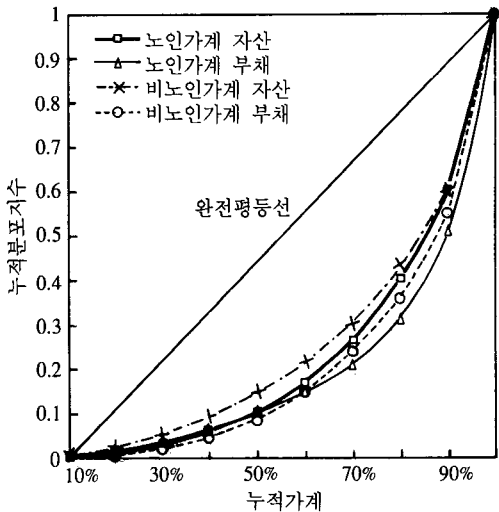
10분위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전체가계	
	총자산	총부채	총자산	총부채	총자산	총부채
하위 10%	.00300	.00311	.00424	.00117	.00198	.00127
하위 20%	.01119	.01296	.02053	.00539	.01093	.00607
하위 30%	.02728	.03281	.05065	.01838	.03194	.02020
하위 40%	.05496	.06081	.09252	.04525	.06498	.04717
하위 50%	.09988	.09810	.14623	.08899	.10958	.09000
하위 60%	.16960	.14828	.21502	.15001	.16943	.14890
하위 70%	.26573	.21352	.30519	.23999	.25102	.23608
하위 80%	.40282	.31400	.42659	.36048	.36941	.35452
하위 90%	.60081	.51019	.60758	.55159	.56343	.54657
Gini 계수	.58008	.62843	.53795	.62430	.56631	.63429

한편 총부채액의 경우, 노인가계는 최하위 10%가 0.3%, 최상위 10%는 49%의 부채를 보유하여 상위 10분위가 163배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상위 5분위는 전체부채의 68.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노인가계는 최하위 10%가 0.1%, 최상위 10%가 44.8%의 부채를 보유하여 최상위 10%가 448배정도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최상위 20%가 64%의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자산 분포를 Gini계수로 비교하였을 때, 비노인가계는 0.54, 노인가계는

두 소득과 지출에 비해 총자산과 총부채의 Gini계수가 .5이상의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지출이 연간액이고 총자산과 총부채는 장기간 누적된 저량이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에 비해 그 편포의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1년 단위로 측정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보다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지출이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자산의 축적을 통한 저량의 의미인 총자산이 경제적 복지수준의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그림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Lorenz 곡선

Lorenz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노인가계의 총자산 Lorenz 곡선이 비노인가계 보다 완전평등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노인가계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부채의 불평등도를 살펴 보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Gini계수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나 최상위 40%부터는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ini계수의 추정방식이 완전평등선을 기점으로 한 삼각형의 면적과 불평등곡선 면적의 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등도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것(Radner, 1987)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에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가계 총소득, 가계경상소득, 근로소득과 총지출액이 모두 낮았다. 또한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에서 노인가계의 경제수준 유지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 자산도 비노인가계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지출과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노인가계의 낮은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며,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가계가 인생후반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경상소득과 총지출, 그리고 총자산과 총부채의 10분위와 Gini계수를 비교한 결과, 경상소득과 총지출 모두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불평등하게 분포되었으며,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총지출이 경상소득보다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총자산의 불평등 분포를 살펴볼 경우 노인가계의 불평등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총부채의 불평등정도는 집단간에 명확한 차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의 비교결과, 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규모의 축소는 사적으로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계획 및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준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 예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총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물자산에 비해 그 보유비율 정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비노인가계의 자산보유 비율의 편중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노인기까지 연결되어, 경상소득의 감소나 단절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용 유동자산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계획 및 상담가는 가계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유동자산의 비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소득과 지출,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비노인가계에 비해 노인기 가계의 경제적 계층화 현상이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이나 자산보유의 분포에서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빈곤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임을 추정하게 함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와 사회단체의 공

적수혜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정책의 기본선 설정과 노인가계중 최저층에 대한 소득안 창출, 조세감면등 노인가계의 복지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년기를 전후한 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가계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후준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기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소득, 지출, 자산에 기초한 경제적 불평등도가 동일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경제수준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화폐소득의 단독 적용이 가계의 경제수준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 등의 복합적인 측정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계동등성지수<sup>3)</sup>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개발된 동등성지수가 지출내역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본 연구의 재정상태 분석의 한 방법인 소득과 지출의 불평등도 분석에 있어 어느 한쪽 지표만의 적용은 본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인가계의 은퇴여부, 세부적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은퇴전·후의 재정상태 변화를 파악하거나 비노인가계의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유동자산/실물자산의 보유수준, 안전자산과 불안정자산의 보유비율 등 전반적

인 투자 포트폴리오행동 등에 대해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지출의 중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소득원의 감소나 중단상태에서 가계를 운영하는 노인가계의 지출한계점과 초과소비를 조사하는 후속연구나 노인가계 및 비노인가계의 총지출과 각 개별비목의 비율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가계의 합리적인 지출패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8.
- 2) 김영숙(1983).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15.
- 3) 김순미·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4) 국민가계경제연구소(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 5) 민재성(1989).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과제. 노인생활 24-29.
- 6) 민재성 외(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7) 박홍립(1991). 미시경제학, 박영사.
- 8)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이희숙(1994).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종류,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1992년도 연구결과 요약 종합보고서.
- 11) 한국의 사회지표, 1994. 통계청.
- 12) 도시가계연보, 1990, 1994. 통계청.
- 13) Bishop, J. A., Formby, J. P., & Smith, W. J. (1991). Lorenz Dominance and Welfare ; Changes

3) 서로 다른 규모 및 구성원을 가진 가계들 사이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술적 지수로, 표준가계를 기준으로 가계간의 복지를 비교한 지수(Radner, 1992)

- in the U.S. Distribution of Income, 1967-1986.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 134-139.
- 14) Danziger, S. Van Der Gaag, J., Smolensky E. & Taussig, M.(1982-1983).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rly. *J. of Post Keynesian Economics* 5(2), 208-227.
- 15) DeVaney, S. A.(1995). How well off are Older Men and Women: Evidence from the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RM Biennial*, 121-128.
- 16) Garner I. T.(1993). Consumer Expenditures and Inequality, an analysi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4, 306-316.
- 17) Malroux, C. M. & Xiao, J. J.(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CP* 6, 17-24.
- 18) Radner, D. B.(1987). Money Incomes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28.
- 19) \_\_\_\_\_(1990).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 Income - Wealth Measures.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2-14.
- 20) \_\_\_\_\_(1992).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55(3), 3-23.
- 21) Schulz, J. H.(1992). *The Economics of Aging*. Fifth Edition. Auburn House.
- 22) Schwenk, N. E.(1990). A Comparison of Household Headed by 55 to 65 Years of Aged: Retired and Employed. *Family Economics Review* 3(3), 19-25.
- 23) Shea, D. & Crystal, S.(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 437-443.
- 24) Wang, H.(1995). Income and Expenditure Inequality of Elderly Households: An Analysis Using The Gini Coefficient. *FERM Biennial* 179-184.
- 25) Yi, Y. A.(1989). Comparison of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Households with Old Householders and Young Householders. *Families in Transition : Structural Changes and Effects on Family Life. 1989 Pre-Conference Workshop* 32-41.